

4. 역사적 무대와 배경

(1)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
鮮卑東夷傳 三十 韓傳 韓在帶方
之南...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馬韓在西 其民土著種植
知蠶桑 作綿布...有...伯濟國...
凡五十餘國 中一 191-192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韓...韓有三種...馬韓在西 有五
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中一
107

梁書 卷五十四 列傳 第四十八
諸夷 百濟 百濟者 其先東夷有
三韓國...弁韓辰韓各十二國 馬韓
有五十四國...百濟即其一也 後漸
强大 兼諸小國 中一 449-450

續日本紀 卷第四十 桓武天皇 延曆
九年七月 辛巳...百濟王仁貞...百濟
王元信...百濟王忠信... 津遠眞道等
上表言 眞道等本系 出自百濟國貴
須王 貴須王者 百濟始興第十六世
王也 夫百濟太祖都慕大王者 日神
降靈 奄扶餘而開國天帝授籙 愬諸
韓而僞王...眞道等先祖 委質聖朝
年代深遠 家傳文雅之業 ... 眞道等
生逢昌運...伏望改換連姓 蒙賜朝臣
於是 勅因居賜姓菅野朝臣 續五
468-472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백제국은 마한의 50여 개국 중의 하나이다. 송나라의 범엽이 424-445년 사이에 편찬한 후한서는, 삼한 지역에 모두 78개국이 있었는데, 백제는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특별히 언급했다. 다른 나라의 이름은 한 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나라 요사렴이 636년에 완성한 양서에 의하면, 백제는 마한 국가들 중의 하나였는데, 나중에 점점 강성해져서 여러 작은 나라들을 병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한다는 일본 사학자들의 대부분은, 거의 병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특히 4세기 초반 이전의 백제와 신라의 왕들에 관한 기록을 모두 김부식의 창작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은 속일본기를 읽어보아도 증명이 될 수 있다.

속일본기는 코오닌(770-781년) 왕의 명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해서, 칸무(781-806년) 왕의 재위 기간 중인 797년에 완성되었다. 편찬 책임자인 후지와라 쓰구타다(727-796년)가 완성 직전에 죽었기 때문에, 함께 편찬을 해 오던 스가노 마미찌(741-814년)에 의해 칸무 왕에게 제출되었다.

속일본기는 일본서기가 기록을 마감하는 서기 697년부터 시작을 해서 791년까지의 9대 95년간을, 년월일을 따라서 편찬한 편년사로서, 나라시대(710-794년) 야마토 왕조의 근본 사료인 것이다.

이 속일본기의 칸무 9년 기록은, 백제 근구수왕이 태조 도모대왕으로부터 세어서 16대 왕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도모대왕이란 온조왕의 부친인 주몽을 지칭하는 것이다. 삼국사기는 근구수왕을 온조로부터 세어서 백제의 14대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삼국사기에 의하면, 근구수왕이 (遠祖 혹은 大祖라고 부르는) 주몽으로부터 세어서 15대 왕이 되는 것이다. 속일본기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아마도 김부식이 재위기간이 아주 짧았던 왕 한 명을 빼어 버렸던 것 같다.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를 보면, 짧은 기간이나마 온조의 형이 먼저 왕이 되었고, 온조는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한다. 그러면 주몽으로부터 세어서, 온조가 2대가 아니라 3대왕이 되는 것이다. 즉, 근구수왕은 온조로부터 세어보면 14대 왕이 되지만, 제왕운기 말대로 온조의 형부터 세어보면 15대 왕이 되는 동시에, 주몽으로부터는 16대 왕이 되는 것이다. <주4-1>

김부식이 백제본기를 쓰면서 빼어 버렸을만한 왕의 존재를 달리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김부식은, 백제 6대 구수왕이 234년에 돌아가자, 장자 사반이 7대 왕으로 계승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므로, 초고왕의 친동생인 고이가 (바로 그 해에) 8대왕으로 즉위했다고 기록을 했다.

김부식은 또, 백제 10대 분서왕이 304년 10월에 돌아가자, 비류 아들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려서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으므로, 신민들이 구수왕의 둘째아들 집안의 비류를 (바로 그 해에) 11대 왕으로 추대했다고 기록을 했다. 여기서 7대 왕이라는 사반의 사례를 보면, 10대 분서왕이 돌아갔을 때, 어린 왕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11대” 왕으로 계승했을 수 있다. 그러다가 나이가 어려 능히 정사를 볼 수 없으므로, 바로 그 해에 비류가 (“11대”가 아니라) “12대” 왕으로 즉위했다고 기록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즉, 김부식이야 어떻게 기록을 했던 간에, 신찬성씨록은 분서왕과 비류왕 사이에 그 누군가를, 사반 같은 초 단명의 백제왕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근구수왕은 주몽으로부터 세어서 15대왕이 아니라 16대왕이 되는 것이다.

서기 815년에 완성된 신찬성씨록은, 문주왕이 시조도모 왕으로부터 세어서 백제 24대 왕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帝王韻紀 卷下 百濟始祖名溫祚 ... 與母兄殷祚 南奔立國 殷祚立五月而卒

三國史記 百濟本紀第一...於是沸流 ...遂與弟率黨類... 至彌鄒忽以居之三下 15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二 古余王 蓋婁王之第二子也 仇首王在位二十一年薨 長子沙伴嗣位 而幼少不能爲政 肖古王母弟古余即位 三下 29

契王 汾西王之長子也 天資剛勇 善騎射 初汾西之薨也 契王幼不得立 比流王在位四十一年薨 即位 三下 31

<주4-1>

제왕운기(帝王韻紀)는 1287년 고려 충열왕 때, 이승휴(李承休)가 저술한 서사시 이다. 제왕운기의 백제기 각주에 의하면, 온조가 친형 은조(殷祚)와 함께 남쪽으로 달아나 나라를 세웠는데, 은조는 왕이 된 지 다섯 달 만에 죽었다. 즉 처음 왕이 된 것은 형인 은조였고, 동생 온조는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또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시조 온조왕 편 의 각주에는, 백제의 시조가 비류왕(沸流王)인데, 아우인 온조와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미추홀에 살았다는 이설이 첨부되어 있다. 즉, 이 각주들의 기록에 의하면, 주몽부터 세어 온조가 2대왕이 아니라 3대 왕이 된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속일본기가, 온조 앞에 주몽과 비류(혹은 은조) 두 명의 왕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한 셈이다.

新撰姓氏錄 第三帙 左京諸蕃下
百濟朝臣 出自百濟國都慕王三十世
孫惠王也 百濟公 出自百濟國都慕
王二十四世孫汶淵王也 石野連出
自百濟國人近速王孫憶賴福留也
新 286-287

新撰姓氏錄 第三帙 右京諸蕃下
春野連 出自百濟速古王孫比流王也
汶斯氏 春野連同祖 速古王孫比流
王之後也 半毗氏百濟國沙半王之後
也 新 301-394

있는데, 삼국사기는 문주왕을 (온조 왕으로부터 세어서) 백제의 22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은 또 혜왕이 도모 왕으로부터 세어서 백제의 30대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사기는 혜왕을 백제의 28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에서 발견되는 이 기록들은 속일본기의 계산법과 일관성이 있다.

신찬성씨록은 삼국사기가 백제 7대왕이라고 말하는 사반왕(234년)을 조상으로 하는 씨족을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은 또, 삼국사기가 백제 11대왕이라고 말하는 비류왕(304-344년)을 조상으로 하는 세 개의 씨족을 기록하면서, 비류왕이 초고왕(삼국사기가 말하는 백제 5대 왕: 166-214년)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신찬성씨록은 백제의 (13대 왕) 근초고(346-375년)의 자손을 조상으로 하는 씨족도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신찬성씨록은, 삼국사기가 166-214년 사이에, 또 234년에 각각 왕위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백제왕들(초고왕과 사반왕)을 조상으로 하는 야마토 지배씨족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찬성씨록은 비류왕이 초고왕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함으로서, 근초고왕과 초고왕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11대) 비류왕이 (13대) 근초고왕의 후손은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5대) 초고왕과 (13대) 근초고왕은 분명히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이다. 이 모든 기록들은, 4세기 이전 백제 왕들의 존재가 김부식의 창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가사의 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학자들 중 누구 하나 내가지적하는 이 사실들을 거론 해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사학자들은 속일본기나 신찬성씨록의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불신토록 만드는데 만 급급했고, 우리 사학자들은 무기력한 지적 공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가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초창기 기록들을 무작정 근거 없는 설화로 취급하지 말고, 특별히 부

정확하다고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록들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2) “부여” 성씨의 백제 왕조

678년에 달하는 백제 역사는, 도읍지를 중심으로, 한성시대 493년(B.C.18–A.D.475년), 웅진시대 63년, 사비시대 122년(538–660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온조가 B.C.18년에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지 389년만인 371년에, 근초고왕이 도읍을 한산(한성)으로 옮겼다. 하지만 하북위례성, 하남위례성, 한산, 한성 등이 모두 한강변의 인근 지역들이기 때문에, 나는 백제가 475년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기 이전 시기를 모두 통 털어 한성시대라고 부른다.

한성시대 493년은, 온조가 졸본부여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려와 마한 북쪽 땅에 나라를 세우고 주변 성읍국가들을 정복해 가는 초기 252년, 고이왕이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적 왕국의 기틀이 확립되어가는 112년(234–346년), 근초고왕이 옛 대방 영역을 수복하고 마한 전체를 합병하는 영토확장 전성시대 39년, 고구려 광개토왕-장수왕(391–491년)의 팽창정책으로 시련이 심화되어가는 마지막 90년(385–475년) 등 4부분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인대(人代) 기록을 읽기 전에, (일본 사학자들이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처음 부분을 읽어 두어야, 야마토 왕국을 세운 사람들의 근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창기 기록을 다시 적어 본다. 주몽은 일찍이 북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다. 졸본부여의 왕은 아들이 없고 단지 세 딸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자 비상한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졸본부여 왕이 돌아가자, 주몽은 왕위를 계승하고, 나라이름을 고구려라 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 이었고, 차자는 온조 이었다.

얼마 후,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

三國史記 卷 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扶餘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 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 爲太子 沸流溫祚 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十臣南行 百姓從之者 多 遂至漢山 登負兄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分其民 歸彌鄒忽 以居之 溫祖都河南慰禮城 以十臣 爲輔翼 國號十濟 是前漢成帝 鴻嘉三年 沸流以彌鄒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 後 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其世系 與 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 三下 15

於是天津日高日子番能邇邇藝能命 遇麗美人 ... 木花之佐久夜毘賣 ... 所生之子名 火照命 ... 次生子御名 火遠理命...火照命者 爲海佐知 毘古 此四字以音...火遠理命者 爲山佐知 毘古...弟火遠理命 ... 海神之女 ... 玉毘賣命...乃見感目合而...然而其 兄...必其兄貧窮...而仕奉...於是海 神之女...乃生置其御子... 卽塞海坂 而返入 是以名其所產之御子 天津 日高日子波限建葦草葦不合命... 娶 其姨 玉依毘賣命 生御子名 五瀨 命...次...神倭伊波禮毘古命 古 130-146

皇孫天津彦根火瓊杵根尊... 織經 之少女者...木花開耶姬... 遂生火酢 芹命 次生火折尊 亦號彦火火見 出尊...兄...自有海幸 幸 此云左知 弟彦火火見出尊 自有山幸... 已而

彦火火見出尊 因娶海神女 玉姬 ...
 時兄...既被厄困 乃自伏罪曰 從今
 以後 吾將爲汝俳優之民...於是兄知
 弟有神德 遂以伏事其弟... 火酢芹
 命 日以禳禳 而憂之曰 吾已貧矣
 乃歸伏於弟...玉姬...光海來到... 其
 兒生之後...宜號彦波草葦不合尊 ...
 海徑去...彦波激武草葦不合尊 以其
 姨玉依姬爲妃...一書曰 先生彦五瀨
 命 次 磐余彦火火出見尊 上 161-
 187

가 뒤늦게 찾아와서 태자가 되었다. 비류와 온조는 유리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열 사람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떠나는데, 따르는 (졸본부여) 백성들이 많았다.

당시 부여-고구려(즉, 북부여-졸본부여) 지역이 발농사를 하는 반 유목사회였다면, 한반도 남부의 삼한 지역은 논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로 이미 완전히 전환되어 있었던 것 같다. 비류와 온조가 발농사를 짓는 고구려 지역을 떠나, 논농사를 짓고 있는 (마한 땅의) 한강변으로 남하할 때, 이들의 모친이 주몽의 경우처럼 좋은 말을 골라주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비류와 온조의 모친이 (고구려 땅에 남아있지 않고) 직접 딸아 나섰다는 기록은 있다.

비류와 온조 일행이 드디어 한산에 이르자, 부아악에 올라 정착할 만한 땅을 찾으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장자 비류는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가서 살았다. 한편 차자 온조는 [하북] 위례성에 도움을 정하고, 열 명의 신하의 보좌를 받으면서, 나라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B.C. 18년)이었다.

장자 비류는, 미추의 토지가 습하고 물맛이 짜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고, 끝내 후회하다 죽으니, 그를 따라갔던 백성들이 모두 위례로 돌아왔다. 그 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온조를 즐거이 따랐다 하여, 나라이름을 백제로 고쳤다한다.

로마라는 국명은 전설상의 시조인 로물루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런데, 돌궐 말로는 “온”이 십(十)을 의미하고, 우리말 고어에서는 “온”이 백(百)을 의미한다(이기백, 1972: 24). 따라서 온조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한자로 기록한다면, 십제도 될 수 있고 백제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돌궐식으로 십제라 부르다가 결국은 우리말대로 백제라고 부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 못하는 후세에 와서, 듣기에 그럴듯한 삼국사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백제 왕실은, 자신들이 고구려 시조 주몽의 후예로서, 그 근본이 부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부여를 성씨

로 삼았다. 살아생전에 북부여 땅을 떠나 새로운 왕국을 창건한 주몽-유리가 성을 고씨로 한 반면, 북부여에는 가 본적도 없고, 바로 고구려 땅에서 출생한 온조가 오히려 성을 부여씨로 한 것이다. 하긴 고구려 땅의 옛 명칭이 졸본부여 이었다니까, 별로 부자연스럽지도 않은 것 같다. 사비(泗水) 시대 때에는 국호 자체를 아예 남부여라고 고친적도 있었다.

고구려는 상당기간 부여와 바로 이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부여”를 너무 강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라도 졸본부여라는 명칭을 고구려로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여로부터 고구려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멀리 떨어진 백제의 왕실은, 오히려 고구려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부여”라는 근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다.

백제 왕실의 경우를 보면, 발농사를 짓는 반 유목국가의 왕족이, 논농사를 짓는 농업 국가의 지배자가 된 셈이다. 즉 백제는, 마한 땅에 세워진 부여족의 정복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제에서의 유목민족 전통이란 것은, 샤머니즘과 고작 왕들의 사냥 행사를 통해서, 그저 상징적인 수준으로 유지된 것 같다.

온조는, B.C. 18년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주몽이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는 사실에 아무런 원한을 품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신천지를 개척하게 된 계기를 고맙게 생각한 것 같다. 당시는 개척과 창건의 시대였다.

온조는 그로부터 3년 후, 사신을 낙랑으로 보내 수교를 하였다. B.C. 9년, 왕이 사냥을 나가서 잡은 사슴을 마한으로 보냈다. 온조는 마한 땅에 와서 마한 왕의 신세를 지면서 새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마한 왕에게 항상 감사의 뜻을 표했던 것 같다. 또 온조 왕의 사슴 사냥 얘기는, 백제에도 투르크-몽골 계통의 유목민족 전통의 한 조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해 10월, 말갈족이 북변을 침범하므로 온조왕이 친히 “기병” 1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격퇴시켰다.

三國史記 卷 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百濟始祖溫祚王 元年 立東明
王廟 四年 秋八月 遣使樂浪修好
十年 秋九月 王出獵獲神鹿 以送
馬韓 冬十月 靺鞨寇北境...王親帥
精騎一百...賊見之即退...十三年 春
二月...王母薨 年六十一世 夏五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
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況今妖祥
屢見 國母棄養 勢不自安 性將遷國
子昨出巡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
都於彼 以圖久安之計 三下 15

三國史記 卷 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百濟始祖溫祚王... 十三年 ...
 秋七月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
 戶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
 場 北至浪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九月 立城闕 十四年 春
 正月 遷都 秋七月 築城漢江西北
 分漢城民...十七年 春 樂浪來侵 焚
 慰禮城 二十年 春二月 王設大壇
 親祠天地 二十二年 九月 王帥騎兵
 一千 獵斧峴東 遇靺鞨賊 一戰破之
 虜獲生口 分賜將士 三十一年 春正
 月 分國內民戶爲南北部 三十三年
 秋八月 加置東西二部 三十八年 三
 月 發使勸農桑... 冬十月 王築大壇
 祠天地 四十年 秋九月 靺鞨來攻
 述川城 冬十一月 又襲斧峴城 王命
 勁騎二百拒擊之...四十一年 二月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慰禮城...多婁王 溫祚王之元子
 器宇寬厚有威望...二年 春正月 謁
 始祖東明廟 二月 王祀天地於南壇
 四年 九月 王田於橫岳下 連中雙鹿
 衆人歎美之 ... 三下 15-17

B.C. 6년 2월, 일찍이 (12년 전에) 비류-온조 두 아들을 따라 남녘 땅으로 내려 왔던 왕의 모친이 돌아가니, 향년 61세였다. 그 해 5월, 온조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낙랑이 있고, [동]쪽에는 말갈이 있어 항상 우리 강역을 침략하니, 편한 날이 없다. 하물며 기괴한 일이 자주 나타나고, 국모마저 세상을 떠나는 등, 형세가 편안치 않으니, 아무래도 도읍을 옮겨야 할 것 같다. 내가 어제 나가 한수의 남쪽을 순시해 보니, 땅이 매우 기름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땅히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하여 길이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B.C. 6년 7월, 한산 아래에 성채를 세우고 [하북]위례성의 민가를 옮겼다. 8월에 사신을 마한에 보내 천도를 알리면서 양해를 구했다. 드디어 경계를 정하였는데, 북으로는 패하에 이르고, 남으로는 웅천에 달하며, 서로는 바다에 이르고, 동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기원전 5년,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B.C. 2년, 낙랑이 침범해 와서 [하북]위례성을 불태웠다. 서기 2년, 온조왕은 큰 단을 설치하고 친히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 4년, 온조왕이 “기병” 1천명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다가 말갈 도적들을 만나자 단번에 격파하고, 사로잡은 포로를 장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년, 호구를 나누어 남부와 북부를 만들었다. 15년에 동, 서 2부를 더 설치했다. 20년, 백성들에게 농사뿐만 아니라, 비단을 만들기 위해, 양잠을 권장했다. 22년, 말갈족이 침공하여 백성들을 살해 하니, 온조왕이 “기병” 200명을 보내 이들을 쫓아 버렸다. 23년, 한수 동북쪽 모든 부락의 1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남]위례성을 수리 증축 하였다.

(3) 온조의 후예들

2대 다루왕은 온조왕의 맏아들로, 도량이 넓고 활달하며 위엄과 명망이 있었다. 왕위에 오른 바로 다음해, 서기 29년 정월, 왕은 “시조” 동명왕 사당에 배알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속일본기나 신찬성씨록 모양, 삼국사기 역시 주몽을 백제의 “시조”라 부르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록이, 백제본기가 첫머리에 “백제 시조 온조왕”이라고 시작을 한 것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속일본기와 신찬성씨록은 아예 “백제 원조(遠祖) 도모(주몽)대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곧바로 주몽으로부터 백제의 왕위를 계산하고 있다.

29년 2월, 다루왕은 남쪽에다 높게 쌓아 놓은 제단 위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다. 31년 9월, 왕이 사냥을 나가 한 쌍의 사슴을 연달아 활로 쏘아 맞히니,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여 마지않았다. 한 반도에 정착하여 농경사회로 전환된 이후에도, 활을 쏘며 사냥을 하는 전통만은 계속 되는 것이다. 37년, 동부의 흘우를 좌보로 삼고, 북부의 진희(眞會)를 우보로 삼았다. 38년 가을,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자 백성들이 사사로이 술을 빚지 못하게 하였다. 백제본기는, 3대 기루왕도 103년에 사냥을 나가 사슴을 잡았다고 기록을 했다. <주4-2>

236년, 8대 고이왕은 사냥을 나가 손수 40 마리의 사슴을 쏘아 잡았다. 왕의 사냥 솜씨가 좋다는 것을 유별나게 강조한다. 238년 정월,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데 북과 피리를 사용했다. 240년, 진충을 등용하여 좌장으로 삼고 내외 병마사를 위촉하였다. 242년 2월, 고이왕은 남쪽의 잡초가 무성한 습지를 개간하여 논을 만들고 벼를 심게 하였다. 같은 해 4월, 왕의 숙부 질(質)을 우보로 삼았다.

220년부터 279년까지는 중국에 위, 오, 촉 삼국이 정립을 하던 시기였다. 246년에 위 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이, 낙랑 태수 유무와 삭방태수 왕준과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했다. 고이왕은 그 틈을 타서 좌장 진충을 보내, 낙랑의 변방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247년 봄 정월,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3월에는 진충을 승진시켜 우보로 삼고, 또 진물을 좌장으로 삼아 병마사를 위촉하였다.

260년 봄 정월, 고이왕은 내신좌평을 두어 출납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내두좌평은 재정을, 내법좌평은 예의법절을, 위사좌평은 친위병의 일을, 조정좌평은 사법의 일을, 병

七年 春二月 ... 以東部屹于爲右輔
十年 冬十月 右輔屹于爲左輔 北部
眞會爲右輔 十一年 秋穀不成 禁百
姓私釀酒...己婁王 二十七年 王獵
漢山獲神鹿...肖古王 蓋婁王之子...
四十五年 春二月 築赤峴 沙道二城
移東部民戶...肖古王 四十九年 命
北部眞果領兵一千 襲取靺鞨石門城
三下 17-19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仇首王...十六年 王田於寒泉
...古余王 蓋婁王之第二子也 仇首
王在位二十一年薨 長子沙伴嗣位
而幼少不能爲政 肖古王母弟古卽位
三年 王獵西海大島 手射四十鹿
五年 春正月 祭天地用鼓吹 二月
田於釜山 五旬乃返...七年... 夏四
月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馬事
...九年 春二月 命國人開稻田於南
澤 夏四月 以叔父質爲右輔... 十三
年...魏幽州刺史 丘儉與樂浪太守劉
茂 帶方太守弓遵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十四
年 春正月 祭天地於南壇 二月 拜
眞忠爲右輔 眞勿爲左將 委以兵馬
事 三下 29-31

<주4-2>

5대 초고왕은 4대 개루왕의 장자이다. 개루왕이 166년에 돌아가자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210년, 초고왕은 적현, 사도 등 두 개의 성을 쌓고 동부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214년, 왕은 북부의 진과에게 명해 군사 1천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석문성을 습격하게 하여 이를 빼앗았다. 초고왕의 장자인 6대 구수왕이 234년에 돌아가자 장자

사반이 계승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능히 정사를 볼 수 없으므로, 개루왕의 둘째 아들 계통이인 고이가 바로 그 해에 8대 왕으로 즉위 했다. 삼국사기는 고이왕(재위 234-286년)을 4대 개루왕(재위 128-166년)의 “둘째 아들” 이라고 기록을 했으나, 인간의 합리적 수명을 감안한다면 “둘째 아들 집안사람”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古尙王 二十七年 春正月 置內臣佐平掌宣納事 內頭佐平掌庫藏事 內法佐平掌禮儀事 衛士佐平掌宿衛兵事 朝廷佐平掌刑獄事 兵官佐平掌外兵馬事 又置達率恩率德率 扞率 奈率 及將德 施德 固德 季德 對德 文督 武督 佐軍 振武 克虞 六左平並一品 達率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奈率六品 將德七品 施德八品 固德九品 季德十品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 三月 以王弟優壽爲內臣佐平 三下 30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古尙王 ... 二十八年 春正月 初吉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韋履 坐南堂聽事 二月 拜眞可爲內頭佐平... 三下 29-30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責稽王 古尙王子 身長大 志氣雄傑 古尙薨 卽位... 高句麗

관좌평은 지방의 군사를 관장토록 하였다. 또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및 장덕, 시덕, 고덕, 계덕, 대덕, 문독, 무독, 좌군, 진무, 극우 등의 계급을 정했다.

6좌평은 모두 1품이고, 달솔은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6품, 장덕은 7품, 시덕은 8품, 고덕은 9품, 계덕은 10품, 대덕은 11품, 문독은 12품, 무독은 13품, 좌군은 14품, 진무는 15품, 극우는 16품이었다. 2월에 영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주색의 옷을 입고 은으로 만든 꽃으로 관을 장식하게 하였으며, 그 이하 11품 이상은 적색의 옷을, 그 이하 16품 이상은 청색의 옷을 입게 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8대 고이왕 때(234-286년) 비로소 제도적으로 중앙집권적 왕국으로서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주서(周書) 백제전이 백제의 시조를 아예 구태(仇台)라고 기록을 했는지도 모른다. 구(仇)와 고(古)는 같은 음이고, 태(台)의 원음은 이(以,爾)이다. (中一: 618)

3월에 고이왕은 동생인 우수를 내신좌평으로 임명했다. 왕은 261년 봄 정월 초, 날씨도 좋고 길한 날, 넓은 소매가 달린 자주 빛 도포에 푸른색 비단 “바지(袴)” 를 입고,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에 [무녕왕 능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금으로 만든 꽃 장식을 부착해서 쓰고, 흰 가죽 띠를 매고, 검정가죽신을 신고서, 정사를 보았다. 2월에는 진가를 내두좌평으로 삼았다.

“바지” 는 기마 민족의 필수 복장이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남자도 치마(裳)를 입었으나, 유목민족은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도 바지를 입었다. 여자들은 단지 바지 위에 폭이 넓은 천을 돌렸던 것이다. 농경사회가 되었다고 유목민족의 복식이 쉽사리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다.

9대왕 책계는 고이왕의 아들로, 거대한 체구에 용감하고 지력이 뛰어났다. 286년에 고이왕이 돌아가자 즉위하였다. 그 해에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니, 대방은 백제에 구원을 청하였다. 이보다 앞서, 책계왕은 대방 왕의 딸 보과를 왕비로 삼았었다. 이 까닭에 책계왕은, “대방은 내 장인의 나라이므로 그 청을 듣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드디어 군

사를 내어 구원하였다. 287년 봄 정월에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하였다.

책계왕의 아들인 분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질었기 때문에, 왕이 지극히 사랑하여 잠시도 자기 주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298년에 왕이 돌아가자 뒤를 이어 10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다음 해 봄 정월에 분서왕은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하였다. 304년 2월에 분서왕은 몰래 군사를 일으켜 낙랑의 서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하지만 그 해 겨울 10월, 왕은 낙랑 태수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다.

분서왕이 돌아가자, 비록 아들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려서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으므로, 신민들이 비류왕을 추대하여 11대왕으로 세웠다고 한다. 11대 비류왕은 (4대 개루왕의 장자 계통인) 구수왕 집안의 아들이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며, 또 힘이 세고 활을 잘 쏘므로, 일찍부터 백성들 사이에 좋은 평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주4-3>

비류왕은 312년 4월에 동명왕 사당에 배알하였다. 313년 정월, 성밖 남쪽 들판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냈는데, 왕은 친히 제물로 할 희생을 손질하였다. 이 또한 유목민족의 유풍 이라고 할 수 있다. 희생이란 천지 묘사(廟社)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을 말한다.

때는 바야흐로 5호16국 시대(316-439년)가 중국 땅에 전개되기 시작할 무렵. 고구려 미천왕은 313년에 낙랑군을, 또 314년에 대방군을 공략한다. 이로서 한반도에서 낙랑과 대방군이 소멸되는 것이다. 미천왕은 319년에 모용외를 공격하고, 320년에는 요동을 공략한다.

백제본기 비류왕 조로 돌아간다. 316년, 왕성의 우물이 넘치고 검은 용이 그 속에 나타났다고 기록을 했다. 320년 8월, 궁성 서쪽에 사대를 만들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활쏘기 연습을 했다. 325년 11월, 비류왕은 구원의 북쪽에서 사냥을 벌리고 손수 사슴을 쏘아 잡았다. 333년, 왕은 진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

왕이 사냥을 나가거나 손수 사슴을 쏘아 잡았다는 기록은 6대 구수왕 조, 16대 진사왕 조, 20대 비류왕 조, 24대 동성왕 조 등에도 나온다. 그런데 29대 법왕(599-600년)

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葉爲夫人 故曰帶方我舅甥之間 不可不副其請 逐出師救之...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汾西王責稽王長子 幼而聰惠... 王愛之不離左右 及王薨繼而卽位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七年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 王爲樂浪太守 所遣刺客賊害薨 三下 31

<주4-3>

삼국사기는 비류왕(재위 304-344년)이 구수왕(재위 214-234년)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의 합리적인 수명을 생각한다면, 7대 사반왕(234)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6대 구수왕 집안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比流王 仇首王 第二子 性年寬慈愛人 又強力善射 久在民間 令譽流聞 及汾西之終 雖有子皆幼得立 是以爲臣民 推戴 卽位 九年 夏四月 謁東明廟... 十年 春正月 祀天地於南郊 王親割牲 ...十三年 夏四月 王都井水溢 黑龍見其中 三下 31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比流王 十七年 秋八月 築射臺於宮西 每以朔望習射... 二十二年 十一月 王獵於狗原北 手射鹿 三下 31

三國史記 卷第十七 高句麗本紀
第五 美川王 十四年 冬十月 侵樂
浪郡...十五年...南侵帶方郡... 二十
年 冬十二月...我及殷氏宇文氏使共
攻慕容廆...二十一年 冬十二月 遣
兵寇遼東 上 316-317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百濟本紀
第三 辰斯王 七年 秋七月 獵國
西大島 王親射鹿 八月 又獵橫岳
之西 八年 冬十月...王田於狗原 經
旬不返... 毗有王 二十九年 春三月
王獵於漢山 三下 45-47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五年 春 王以獵出至
漢山城...二十二年 夏四月 田於牛
頭城 三下 59-61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法王 冬十二月 下令禁殺生
收民家所養鷹鷄放之 漁獵之具焚
之...武王 三十三年 秋七月... 王
田于生草之原 三下 72-74

魏書 卷一百 列傳 第八十八 百濟
國 其先出自夫餘 其國北去高句麗
千餘里 處小海之南 其民土著 地多
下濕 率皆山居 有五穀 其衣服飲食
與高句麗同

周書 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
域上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
屬國 夫餘之別種...治固麻城...王姓
夫餘氏 號於羅瑕

宋書 卷九十七 列傳 第五十七
夷蠻 東夷 百濟國 本與高麗俱在遼
東之東千與里 其後高麗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晋平

은, 왕위에 오르자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서 모두 놓아주었으며, 수렵 도구를 태워버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후, 30대 무왕(600-641년)이 사냥을 나갔다는 기록이 나오기는 하지만, 불교의 영향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그나마 상징적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유목민족 전통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다.

(4) 중국 정사의 백제 기록

이제 중국의 정사에 나오는 백제에 관한 기록들을 본다. (북)위서는 백제의 선조가 부여로부터 내려왔으며, 의복과 음식은 고구려와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위서는, 북제(551-554년) 때 위수라는 사람이 왕명을 받아, 북위의 건국(386년)으로부터 동위의 효정제(550년)까지 기록을 한 정사이다.

주서는 백제의 선대가 마한에 속하는 나라였으며, 부여의 별종인데, 왕의 성은 부여씨로 “어라하”라 부른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 “어라하”는 왕 또는 왕성(王城)을 의미하고, 진무의 이름 “이하레”와 유사하다.] 주서는 당나라 고조와 태종의 치세 때(618-628년) 령호덕분 등이 명을 받아 편찬한 북주(557-581년)의 정사이다.

송서는 백제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1천여 리 밖에 있었는데, 그 후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를 경략해서 차지했으며, 백제가 통치한 지역은 진평군 진평현 이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송서는 제나라의 무제(482-493년) 때, 심약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중국 남조 송나라(420-479년)의 정사이다. 백제가 당시에 요서지방에 진출했다면 아마 해상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양서와 남사는 백제가 요서, 진평 2개 군을 점거해서 백제군을 설치했다고 한다. 양서는 당 태종 때(626-649년), 요사렴이 왕명을 받아 완성한 양나라(502-557년)의 정사이다. 남사는 당 태종 때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한 남조

(송, 제, 양, 진) 170년간의 정사이다.

양 직공도(梁 職貢圖)는 백제의 요서 진출 시기가 동진(317-420년)의 말기라 한다. 양 나라에 온 20여 개국 사신들의 용모와 옷차림 등을 그리고 또 간단한 설명까지 곁들인 양 직공도는, 서기 526-539년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직공도 에는, 백제로부터 온 사신들의 그림과 함께, 백제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홍직, 1973)

진서(晉書)는 당 태종 때 (644-6년) 방현령(房玄齡) 등이 편찬한 서진(265-316년)과 동진(317-420년)의 정사이다. 진서는, 전연(337-370년)을 세운 선비족 모용황에 대한 기록에서, “고구려, 백제 및 (선비족의) 우문부, 은부의 사람들이 모두 군대를 움직였다” 라는 말을 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미천왕(300-331년)이 319년에, 선비족인 우문씨와 은씨의 군사들과 함께, 모용황의 부친인 모용외(廆)를 공격했고, 다음해 320년에는 요동을 공격했다고 기록을 했다.

진서와 삼국사기의 기록들이 정확하다면, 백제는 비류왕(304-344년) 때인 319년에 군대를 움직였고, 320년에 고구려가 요동을 공략한 이후 언제인가 요서를 점거했다는 말이 된다.

자치통감은 송나라(960-1279년)의 사마광(1019-1086년)이 편찬한, B.C. 403년부터 A.D. 959년에 걸친 중국의 역사책이다. 그런데 이 자치통감은, 동진의 목제 영화 2년(346년) 때, 룡산에 위치해 있던 부여를 백제가 침공했기 때문에, (부여의) 부락 (사람)들이 흩어져 서쪽의 연 나라에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선비족인 연 나라 왕 모용황은, 세자와 세 명의 장수에게 1만7천여 명의 기마병을 주어, 이미 자위능력을 상실한 부여를 습격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부여 왕국은 346년에 와해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선비족 모용황은 일찍이 고국원왕 12년(342년) 11월에 고구려의 환도성을 급습하여, 미천왕능을 파헤쳐 그 시체를 수레에 싣고, 창고의 보물들과 고국

郡晋平縣

梁書 卷五十七 列傳 第四十八 諸夷 東夷 百濟 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弁韓辰韓各十二國 馬韓有五十四國 大國萬餘家 小國萬餘家 總十餘萬戶 百濟即其一也 後漸強大 兼諸小國 其國本與高麗在遼東之東 晉世句麗既略有遼東 百濟亦據有遼西 晋平二郡地矣 自置百濟郡 ...

梁 職貢圖 百濟國使 百濟舊來夷馬韓之屬 晋末駒麗畧有遼東 樂浪亦有遼西晋平縣 自晋已來常修蕃貢 義熙中其王餘腆 宋元嘉中其王餘毗 齊永明中其王餘太 皆受中國官爵 梁初以太 除征東將軍 尋爲高句麗所破 普通二年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 所治城曰固麻 謂邑檐魯

원왕의 모친을 포함한 남녀 포로 5만여 명을 사로잡아 갔었다. 이 비운의 고국원왕은, 그로부터 30여년 후인 371년에, 평양성에서 근초고왕(346-375년)과 싸우다 전사를 하게 된다.

아무튼 자치통감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백제는 346년에 요서의 백제군으로부터 부여를 공격했었을 것이다. 346년은 근초고왕 즉위 원년이다. 당시는 백제의 전성기인 동시에, 중국 대륙은 오호 16국(316-439년)의 혼란기에 빠져 있었으므로, 백제의 요서 진출이란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과 중국정사의 기록들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경우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송서, 진서, 양서, 양 직공도, 남제서, 남사, 자치통감 등에 나타나는 백제의 요서 진출기록을 해석하는 우리 사학계의 태도는, 항상 그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중국 정사들의 그 많은 기록들을 모조리 외면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변번치 않은 존재가 감히 어떻게 요서에 진출을 할 수 있느냐는 확고부동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불신과 반박의 논리를 전개하는, 자기비하 위축 형이다. 두 번째는, 백제가 진출한 지역이 중국 땅에 어찌 요서 뿐 이겠느냐는 식의 과장 형이다. 전자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닥치는 대로 한국 역사를 비하하는데 심혈을 경주해 온) 일본 사학자들의 견해와 거의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일제가 주입한 식민사관이라 매도되고, 후자는 과대 망상적 민족사관이라며, 모두 다 불신의 대상이 된다. 주눅이나 허풍이나 모두 내면적인 자신감의 결핍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양서에 의하면, 백제의 언어와 복장은 고구려와 거의 같지만, 걸을 때 두 팔을 벌리지 않는 것과, 절을 할 때 한쪽 다리를 펴지 않는 것이 다르다. 또 백제에서는 머리에 쓰는 모자를 관이라 부르고, 저고리(襦)를 (옷 위에 겹쳐 입는) 적삼(複衫)이라 부르고, 바지(袴)를 잠방이(禪)이라 부른다. (저고리-바지는 전형적인 유목민족 의상이다.) 도성을 고마[구마, 곶]라 하고, 읍을 담로(檐魯)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군과 현에 해당한다. 백제에는 22개의 담로가 있는데, 모두 왕실의 자제와 종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의 근거지로 삼게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봉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 사람들은 키도 크고 의복도 깨끗하나, 그 나라가 왜와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其國近倭) 문신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가깝다(近)는 표현은,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닐 것이다. 양 직공도 예도, 백제의 사신도 그림과 함께, 거의 똑 같은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주서 이역전의 백제전에 의하면, 벼슬은 16품계(品階)가 있는데, 1품인 좌평은 5명이고, 2품인 달솔은 30명이다. 3품인 은솔 이하 품계에는 일정한 정원이 없고, 각기 맡은 부서가 있어 각종 사무를 나누어 관장했다고 한다.

궁중 내부의 사무를 보는 내관은, 왕의 명령을 받아 출납을 관장하는 전내부, 곡식을 관장하는 곡부, 육류를 다루는 육부, 궁내의 창고 업무를 담당하는 내략부, 궁 밖의 창고를 관리하는 외략부, 왕실의 말을 관리하는 마부, 칼등 무기를 제조하는 도부, 불교 사찰을 관리하는 공덕부, 약을 만들고 치료를 담당하는 약부, 토목 공사를 관장하는 목부, 예의와 의전 관계를 담당하는 법부, 후궁들을 뒷바라지하는 후궁부 등 1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정외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외관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군부, 교육과 의전관계를 담당하는 사도부, 토목과 재정 경제를 담당하는 사공부, 형벌 관계를 담당하는 사구부, 호구를 파악하는 점구부, 외교를 담당하는 객부, 관리의 인사 행정을 관장하는 외사부, 직물을 제조하는 주부, 천문과 점술을 담당하는 일관부, 상공업을 관장하는 도시부 등 10개의 부가 있었다.

후에 소개되는 야마토 왕국의 베(部) 제도는, 바로 이 백제의 부(部) 제도를,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아주 융통성 있고 유연한 형태로 복사를 한 것이다.

도성에는 1만 호의 인구가 거주하며, 상부, 하부, 전부, 후부, 중부 등 5부로 나누었다. 각부에는 5백 명의 군사가 있었다. 지방에는 5개의 방이 있는데, 은솔 한 명이 방의

梁書 卷五十七 列傳 第四十八 諸夷 東夷 百濟... 號所治城曰固麻 謂邑曰擔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有二十二擔魯 皆以子弟宗族分據之 其人形長 衣服淨潔 其國近倭 頗有文身者 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行 不張拱 拜不申足則異 呼帽曰冠 周書 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上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 故其地界東極新羅 北接高句麗 西南俱限大海 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百餘里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 王姓夫餘氏 號於羅 瑕民呼爲靺吉支 夏言竝王也 妻號於陸 夏言妃也 官有十六品 左平五人 一品 達率三十人 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奈率六品 六品已上 冠飾銀華 將德七品紫帶 施德八品皂帶 固德九品赤帶 季德十品青帶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皆黃帶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皆白帶 自率以下 官無常員 各有部司 分掌衆務 內官有前內部 穀部 肉部 內掠部 外掠部 馬部 刀部 功德部 藥部 木部 法部 後官部 外官有司軍部 司徒部 司空部 司寇部 點口部 客部 外舍部 綱部 日官部 都市部 都下有萬家 分爲五部 曰上部 前部 中部 下部 後部 統兵五百人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郡將三人 以德率爲之 方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民庶及餘小城 咸分隸焉 其衣服 男子畧同於高麗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界戎事即不拜謁之禮 以兩手據地爲敬 婦人衣似袍 而袖微大 在室者 編髮盤於首 後垂一道爲飾

出嫁者 乃分爲兩道焉 兵有弓箭刀
稍 俗重騎射 兼愛墳史 其秀異者
頗解屬文 又解陰陽五行 用宋元嘉
曆 以建寅月爲歲首 亦解醫藥卜筮
占相之術 有投壺擲蒲等雜戲 然
尤尚奕碁 僧尼寺塔甚多 而無道士
賦稅以布絹麻及米等 量歲豐儉 差
等輸之 其刑罰 反叛退軍及殺人者
斬 盜者流 其贓兩倍徵之 婦人犯
姦者 沒入夫家爲婢 婚娶之禮 畧同
華俗 父母及夫死者 三年治服 餘親
則葬訖除之 土田下濕 氣候溫暖
五穀雜果菜蔬及酒禮饋饌藥品之屬
多同於內地 唯無駝驢騾羊鵝鴨等
其王以四仲之月 祭天及五帝之神
又每歲四祠其始祖仇台之廟

수령이 된다. 각각의 방에서 거느리는 군사는 7백 명 내지 1천2백 명 이었다. 성 내외의 백성들과 주변의 작은 성들이 모두 여기에 속했다. 군에는 덕솔인 장수가 3인씩 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특징은, 각국의 생사가 걸린 결전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 안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느 순간이라도 총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란, 간헐적인 충돌과 임전 상태가 반복되는, 가장 긴장되고 역동적인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서로 돌아간다. 백제 사람들의 의복을 보면, 대략 고구려와 동일하였다.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관의 양쪽에는 “새의 깃털”을 달았고, 부인의 의복은 도포 같으면서 소매가 약간 컸다.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은 머리를 뒤로 묶어 머리 위에 따리를 튼 다음,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모양을 냈다. 시집을 간 여자는 두 가닥을 늘어뜨렸다. (주서는,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렸다고 기록했다.) 일본 타카마츠 쓰카(高松塚)의 벽화를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백제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 고분시대 하니와 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손을 땅에 짚고 절을 한다. [투르크-몽골 유목민족의 전통이 남아]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숭상한다. 사람들이 경전과 역사책을 애독하니, 음양오행도 이해를 하고, 제법 문장을 엮을 줄 아는 사람도 있다. (443년에 만들어진) 송나라 원가력을 채용했다. 의술, 약술, 복술, 관상 등도 알고, 바둑과 장기를 즐긴다. 중, 비구니, 절, 탑 등은 매우 많지만, [노장(老莊) 사상의 류(流)를 기본으로 하는] 도사(道士)는 없다.

세금은 베, 비단, 삼베 및 쌀 등으로, 그 해의 작황에 따라 조절을 했다. 반역자, 살인자, 전장에서 퇴각을 한 자는 목을 베었다. 도적질을 한 자는 두 배로 추징을 하고 유배를 시켰다. 간통을 한 여인은 남편 집의 종으로 삼았다. 왕은 매 계절마다 시조의 사당, 하늘, 그리고 동, 서, 남, 북, 중앙 등 5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상은 모두 주서의 기록이다.

주서를 보면서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신라 지배계급의 후손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보다, 당나라 사람이 쓴 주서가 훨씬 더 백제의 문물제도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부식이 주서를 못 보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

김부식은 백제에 대해서 도대체 한 글자도 쓰기가 싫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편찬한다는 책 이름이 삼국사기이니, 백제를 빼놓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부식은 마지못해 백제에 대해 최소한의 기록만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머리에 쓰는 관의 양쪽에 꽂는 “새의 깃털”에 대해 얘기를 좀 해 볼까 한다. 642년에 그린 그림으로 생각되는 돈황 석굴 220호 벽화에는, 고구려 사절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두 개의 깃털이 달린 조우관(鳥羽冠)을 쓰고 있다. 돈황 벽화 속에 그려진 중국 사절의 도포는, 소매가 넓으며 길어도 땅에 끌릴 정도인데, 고구려 사신의 도포는, 길이가 훨씬 짧아, 양 직공도에 나오는 백제 사신도의 그림과 비슷하다. 1965년에 발굴된, 우즈베크 사마르칸트 시의 북쪽 교외에 있는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도, 고구려 사신의 그림이 나온다. 그 역시 두 개의 새 깃털을 꽂은 조우관을 쓰고 있다. 소매가 좁고 엉덩이를 가릴 정도 길이 밖에 안 되는 저고리와 유목민족형의 바지를 입었는데, 검은색 혁대를 두르고, 고리 모양의 머리장식을 한 환두태도(環頭太刀)를 차고 있다. (국제한국학회, 1999: 189-213)

(5) 중국 대륙의 혼란기

중국대륙을 본다. 장안(서안)에 수도를 두었던 전한(서한, B.C. 206 - A.D. 5)은 흉노에게 공주를 시집보내고, 온갖 귀한 물건들을 보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변경의 안정을 확보해 보려 했으나, 흉노들의 거듭되는 약탈과 파괴를 면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무제(B.C. 141-87년) 때에 와서, 한 나라는 북방 흉노족을 대대적으로 소탕하고, 고비사막 이남에는 흉노 왕조를 수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동이족을

정벌하여 한 4군을 설치했다.

그 유명한 왕소군 이야기는, 한 나라가 (무제 이후에도) 흉노에게 얼마나 계속해서 수모를 받으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한 황실은 흉노 왕에게 공주와 공녀들을 바쳤었는데, 원제(B.C. 49-33년) 때에 공녀였던 왕소군은 B.C. 33년에 흉노 왕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아들에게 재가하여 두 딸을 낳았던 것이다. 이 왕소군의 이야기는 전설화되어 수 많은 문학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전한은 낙양에 수도를 둔 후한(동한, 25-220년)으로 이어진다. 후한의 광무제(25-57년)는 남쪽의 흉노족을 거느리고 북쪽의 흉노를 공격했다. 드디어 91년에는 일부 흉노의 항복을 받아내고, 나머지 흉노들은 서쪽으로 멀리 달아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1세기 말엽부터, 후한의 혼란기가 시작된다. 서기 88년에 즉위한 화제를 포함해서, 그 뒤를 이은 8명의 황제가, 모두 10세 혹은 15세 미만의 나이로 즉위했다. 즉위 후 상당기간은 모후와 외척이 정권을 장악하지만, 황제가 성인이 되면 측근의 환관들을 이용해서 외척을 제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107년에 시작한 농민봉기는 100여 차례나 계속되다가, 184년에 드디어 황건(黃巾)의 대 봉기가 일어났다. 얼마 후 황건의 난이 대충 평정되는가 싶더니, 190년에 동탁의 난이 또 발생했다. 군웅이 할거하는 혼란기를 거쳐, 위, 오, 촉의 삼국시대(220-279년)가 전개되었다. 사마염은 266년에 (낙양에 수도를 둔) 위 나라를 접수하고, 또 280년에는 오 나라를 합병했다. 중국대륙이 짧은 기간이나마 허약한 서진(265-316년)으로 통일이 된 것이다.

진 무제라 부르는 사마염(265-290년)은, 일찍이 중앙 아시아까지 진출을 시도한 적극적인 인물이었지만, 말년에 가서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 백성들은 허무감에 빠지고, 참담한 현실을 도피하여, 대나무 숲 속에서 세속을 초월한 청담을 주고받는다. 죽림칠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마염이 55세의 나이로 죽자, 황태후 양씨 일족과 황태자비가남풍 사이에 권력 쟁탈전이 벌어졌다. 결국 천치 왕자 충

이, 혜제 라는 이름으로 황제가 된다. 허수아비 황제 치하 16년 간, 사마씨 형제간에는 8왕의 난 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살해 극이 벌어 졌다.

회제 사마치(306-313년)가 제위에 오를 무렵, 유연 이 이끄는 흉노가 중원을 침략해 왔다. 중원이 혼란 상태에 빠지자, 소위 다섯 오랑캐들이라는 흉노, 선비, 갈, 저, 강, 등 5호가 황하와 양자강 상류지역에 쳐들어왔다. 한국 역사 에서 낙랑과 대방이 소멸된 것도 바로 이 때(313-4년)였다.

서진(西晉)은 316년에 망하고, 진 나라 황족의 일원 으로 강남을 다스리던 사마예가, 강남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 건강(남경)에 수도를 정하고 동진(317-420년)을 세운다.

이때부터, 중국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갈 피를 잡을 수 없이 복잡한, 5호 16국이라는 대 혼란기(316-439년)가 시작된다. 304년에 흉노족이 세운 전조는, 갈 이라고 부르는 종족의 석륵이 세운 후조(319-352년)에 의해, 329년에 멸망된다. 선비족의 모용씨가 세운 전연(337-370년)은 저족의 전진(351-397년)에 의해 370년에 멸망된다. 마침내 북 중국을 장악한 전진(前秦)의 부견은, 천하를 통일 하기 위해 5호들을 이끌고, 386년에 남 중국의 동진(東晉)을 침공했다. 하지만, 전진의 87만 대군은 비수 대전에서, 8만의 동진 군대에게 궤멸 당했다.

420년, 평민 출신의 유유(劉裕)가 동진을 멸망시키고 송 나라(420-479년)를 세웠다. 이 (유)송을 비롯해, 그 뒤를 이은 남제(479-502년), 양(502-557년), 진(陳, 557-589년)을 모두 남조라고 부르는데, 수도는 건강(남경)이었다. 439년, 선비족 탁발 씨가 세운 북위(386-534년)가 마침내 북조를 통일한다. 북위가 북부 중국을 차지하고 있던 때가 바로 광개토 대왕(391-413년)에서 장수왕(413-491년)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최 전성시기에 해당한다.

북위는 493년에 낙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한족과 화 해를 도모했으나, 결국 534년에 동위와 서위로 갈라진다. 동 위는 다시 고씨 손에 넘어가 북제가 되고, 서위는 557년에 선비족의 우문씨 손에 북주가 된다. 577년, 북주는 북제를 정복하여 북 중국을 통일한다. 581년, 북주 우문씨의 외척인

양견이 정권을 장악하고 수나라(581-618년)를 세웠다. 583년, 장안으로 천도를 한다. 이 선비족 출신의 수 문제는 589년에, 남제와 양을 계승한 진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북조를 통일한다.

서력 기원 1세기 이후, 후한이 쇠망의 길을 걷게 되면서 시작한 중국대륙의 혼란기는, 280년부터 303년까지 잠시 천하를 통일한 그 허약한 서진(266-316년)으로부터 3백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드디어 수 문제에 의해 다시 통일천하가 된 것이다.

중국 대륙에서 전한(B.C.206-A.D.5)이 천하를 제패하고 사방으로 팽창을 할 때, 만주와 한반도 북서부에는 한사군이라는 식민지들이 설치되었다. 후한(25-220년)의 전성기는 100년도 넘지 못했다. 2세기 초부터 중국 대륙의 본격적인 혼란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6세기말에 (선비족 출신의) 수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곧바로 고구려에 대한 침공이 시작되었다. 수 나라가 고구려 침략에 국력을 탕진하고 망하자, 당나라(618-907년)가 그 뒤를 이었다. 당 고조 이연(李淵, 618-626년)은 수 문제의 총애를 받으며, 지방관에 임명되어 농민 반란을 진압하고 돌궐족의 침입을 막는 임무를 맡았었다. 자신은 한(漢)족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호(胡)족의 후예이었다. 이연은, 둘째 아들인 당 태종(626-649년) 이세민의 권유로, 돌궐족의 도움을 받아 장안을 점령하고, 당 나라를 세워 중국대륙을 통일했다.

당시에 돌궐족은 동쪽으로는 고비사막,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인근 지역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다. 당 나라는 우선적으로 고비사막에서 천산산맥 남과 북에 이르는 지역의 돌궐족들을 정복하고 도독부를 설치했다. 이제 남은 사업은 동이족의 정복이었다.

655년부터 국정에 참여하기 시작한 고종의 황후 측천무후는, 659년에 드디어 조정의 대권을 장악했다. 그로부터 705년까지, 중국대륙은 측천무후의 천하였다. 측천무후는, 수 나라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라라는 내부의 협력자를 먼저 확보했다. 당 나라는 신라를 이용해서 만

주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 했고, 신라는 당 나라를 이용해서 삼국을 통일하려 했다. 결국 당 나라가 대동강 이북과 만주를 차지하고, 신라가 그 남쪽 한반도를 차지하는 형식으로 타결이 되는 가 했더니, 8세기 초에, 부여-고구려 계통의 유민이 말갈족과 함께 세운 발해(698-926년)가 나타나, 만주 남부를 차지했다. 결국 한(漢)족에 의한 동이족의 정복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일찍이 요동과 요서의 땅은 한(漢)족과 조선족이 겨루던 지역이었다. 후에 한족은 고구려와, 또 발해와 이 지역에서 겨루게 되고, 다음에는 몽골-선비 계통의 거란족과 겨루게 된다. 그 다음에는, 한족은 빠지고, (선비 계통의) 거란족과 (숙신-읍루 계통인) 흑수말갈 여진족이 겨루게 된다.

후한이 쇠망의 길로 접어드는 2세기 초부터 당나라가 대두하는 7세기 초 사이의 (5백년 가까운) 중국 대륙의 혼란기는, 만주와 한반도에 위치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 시기를 만들었다. 중국 대륙에서의 혼란이란 것은, 바로 주변 국가들의 번성을 의미했다.

중국 정사가 기록하는 요서의 백제군 설치에 백제의 최고 전성시대인 4세기 중에 이루어 졌다. 백제 사람들의 야마토 왕국 건설도 바로 이 전성 시기 중에 이루어 진 것이다.

서양을 보자. 4세기 중엽에 홀연히 불가강 동쪽으로부터 나타난 훈족은, 370년 경부터 유유럽 중부와 남동부를 침략하기 시작하여, 451년에 아틸라가 갈리아에서 로마-서고트 연합군에게 패배할 때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룩했다. 전 유유럽 대륙이, 5호 16국의 중국대륙 보다 더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이다.

Chapter 5 begins at 95.